

회복의 비밀과 치유의 비밀을 선포한 파수꾼 말라기 -복음으로 여는 말라기- 말라기 3:10, 마태복음 23:23

정윤돈 목사님

* **말3:10**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
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
며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
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
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
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며, 또 절대불가능한 영
육 간의 그러한 질병들이, 문제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또 올인하고 생명을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
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발견
하고 붙잡고, 그 말씀성취를 위하여 도전하고 응답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
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립 59주년과 교회에 주신 응답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응답을 붙잡아야 하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성전과
교회가 무너졌다. 유럽과 미국, 한국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복
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참사랑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
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만으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정치를 잘하고 소득이 높으며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
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터 틸의 과학과 사회에 대한 대답을 보면서,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AI 역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방향이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
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기준이며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자체를 의
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우리가 붙잡고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다. 우리가 붙잡고 전하
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법사도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
는 길이다.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원
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결국 모든 답은 그리스
도 안에 있다.

3) 선악을 분별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서로를 판단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좌우와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으로 사람과 세상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성도
는 세상의 진영 논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과 우주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
를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2.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 복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 역사하신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예배와 부흥회
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오늘날의 한국이 세워지는 과
정에도 이러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와 헌신이 함께해야 한

다. 의인 한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한 교회가 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복음이 없으면 본질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으로 흑암의 역사를 쫓아야 한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1)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도
를 전하시기 바란다.

(2)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
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했다. 이제 우리가 전할 복음의 말씀이다.

(3)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인간도 우리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4)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
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
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인격이나 윤리와 도덕에 근거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므
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5)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3. 오직 기도 속에서 성령찬만을 받을 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살릴 수 있다.

1) 다니엘처럼 기도 성령에는 기도의 모델들이 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
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단6:10).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의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한 사
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성도는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한다.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
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
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
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
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하셨다. 우리
는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
까지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
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 기도하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지나고 보니 기도하며 기
록했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하셨다. 당시에는 늘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셨다.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
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돌아보아야 한다.

4) 우리 교회도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 세워졌다. 지금의 참사랑교회는 제3성
전이다. 과거에는 판잣집과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성도와 장로와 중직자
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 오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응답을 이어받아 더 큰 열매를 맺어야 한다.

5)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빌립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한다. 염려
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므로 성
도는 현재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며 기도와 감사로 살아야 한다.

6)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
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남은 자이며 순례자이며 정복자이다. 일곱 포인트의 사람
은 믿음과 기도와 감사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4.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 1) 첫째,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적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2) 둘째,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가 되어야 한다.
- 3) 셋째, 후대를 영적·기능적·문화적 서임으로 세우야 한다.
- 4) 넷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 5) 다섯째, 복지와 전도NGO를 통해 복지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오
랜만에 케냐에 갈 예정이다. 케냐에서도 선교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NGO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지금은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직업훈련원
까지 세워졌다. 이 응답으로 주변 나라의 강사로 다닐 정도가 되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6)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여
서 말씀운동, 치유운동의 절대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100년, 1,0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도 바로 이러한 회복의 문제를 다룬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
복된 지 약 10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나태해졌고, 교회와 성전과 예배가 무너져
갔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비밀을 파수꾼 말라기를 통해 전하셨다. 오늘 우
리 역시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문제들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문제는 불신앙과 영적 타락이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반문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훈계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에도 사랑의 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2)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이든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하신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로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때 성장한다. 그러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변화할 수 없다. 당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세 번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 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은 더러운 떡과 눈 멀고 병든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가치 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이었다. 제물의 피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제사의 타락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복음이 희미해진 상태를 보여준다. 제가 가끔 장로님들에게도 총회에 오지 말라고 한다. 왜 하나하면 믿음이 진짜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환경 때문에 시련 들고 상처받게 된다. 목회자와 주직자 역시 자라나 이익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성도는 현재의 갈등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미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만큼 믿음이 성장하여 현재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비웃으며 헌금도 바르게 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뻑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나니라 너희가 이같이 불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 말이니라(말1:13)” 말라기 1장 13절은 그들이 불헌을 귀찮은 일로 여기고 썩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책망한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귀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일보다 낮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충만하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와 봉사와 후대를 위한 헌신을 귀하게 여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42)”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와 성도와 램프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갚아주시 줄 믿으시기 바란다.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성공과 부와 직분을 얻었다면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한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파와 세계를 살리는 데에 있다. 성공할수록 예배와 헌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이다.

4)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말2:2)” 말라기 2장 2절의 경고는 하나님께 단순히 양심을 유혹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강한 권면이다. 성도는 세상만 바라보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계3:16)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5)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혼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6절은 이혼과 학대를 책망하며 심령을 지키라고 말씀한다. 가정에서 폭행하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영적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동이 무너지고 결국 가정과 사회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존중해야 한다.

6) 백성들이 성전에 드려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백성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야 했고, 결국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다(느13장).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전을 정리하고 다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회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십일조와 헌물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예배와 교회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이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와 사역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실천이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니” 느헤미야 13장 10절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 각자의 밭으로 떠났다고 말씀한다. 십일조와 헌물은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복음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의 참사랑교회 역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과 회생과 기도를 통해 59주년까지 세워졌다. 이 응답의 가치를 알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린다. “헌금하고 십일조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다. 십일조의 근본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결단에 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은 후 멜기세덱을 만나 십일조를 드렸다(창14:17-20). 이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십일조는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십일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창14:17-20),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고 십일조를 드렸다고 결단했다(창28:20-22). 이후 레위인은 성막과 성전의 사역을 담당했고 다른 지파의 십일조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민18:21). 따라서 십일조는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새신자는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와 주직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맞는 헌신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역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큰 헌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었다. 십일조와 헌신은 사람마다 형편과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자신의 형편과 사명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도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과 누님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작은 결단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말라기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더 드리고 더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 어머니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다. 교회 곳곳에 남겨진 그 흔적을 보며,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후대가 회복되는 모습도 보게 된다. 믿음의 기도와 헌신은 후대까지 이어진다.

2)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름을 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237나라, 5천 종족, 즉 땅끝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방 민족, TCK, NCK, CCK이다. 이것은 복음이 특정 민족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준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이 크게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시간표가 있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민족과 나라에 전달해야 할 시간표이다.

3)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는 뜻이 아니다. 십일조를 통해 예배와 성전과 사역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4)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7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에는 예배와 헌신과 찬양뿐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도 포함된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한다.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치유하는 광선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생명과 기쁨이 회복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자신이 있는 환경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약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사역(신약 세계 요한. 마11:13-14)은 그리스도께서 루실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사역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관계와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영접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예배와 헌신,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결론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의 광선이 성도들과 후대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현장에 발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라기 선지자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치유의 광선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말라기의 말씀을 다시 회복 되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말씀해 주신 이유와 그 내용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께 인양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절대대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